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0, 2018 Vol. 624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됨과 기도” 미국과 한국 위해 부르짖다

남가주 한인들, 제67회 국가 기도의 날 동참

남가주 한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다. 지난 5월 3일 저녁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행사에는 3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한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1988년부터는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개최일이 확정됐다. 올해에도 연방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일제히 기도회가 열렸다. 남가주 한인들은 수년 전부터 JAMA와 각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들이 협력해 이 기도회에 동참해 왔다.

올해의 주제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하나됨(Pray for America-UNITY)”이었으며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였다.

이번 기도회에서 한인들은 이 주제에 걸맞게 기도의 힘, 연합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메시지를 전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온갖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자”고 외쳤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성도 350여 명은 성령으로 하나 됐다. 여기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며 불을 붙였다.

기도회의 제1부는 미국을 위한 기도로, 이서 목사(OC교협회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전혜숙 목사(은혜한인교회), 박종술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 유수연 사모(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배승언 목사(토랜스조은교회)가 대표기도했다.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은 회개와 부흥, 가정과 교회, 교육과 문화, 사회정의 등이었다.

2부는 미국 지도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가 통성기도를 인도한 가운데 하성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남상권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장),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데비 리 학생(USC 총학생회장)이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과 연방대법관, 상하원 의원과 군 지도자 등을 위해 대표기도했다.

3부는 한국을 위한 기도였다. 원래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이지만 한인들은 매년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 이 순서는 엄규서 목사(목사장로부부합창단 단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했으며,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충만교회), 오경환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이호민 목사(가디나선교교회), 김영환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더글라스 김 목사(HYM) 등이 한국 대통령과 정부, 안보와 통일, 한국 교회와 목회자, 북한의 성도들과 예배의 자유, 부흥과 선교, 경제 발전 등을 위해 대표기도했다.

김준식 목사와 이번에 임직받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끝까지 감당하라

남가주샬롬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가 지난 7일 주일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자를 세웠다. 이날 2명의 장로 장립, 2명의 장로 취임, 5명의 안수집사 안수, 4명의 안수집사 취임, 18명의 권사 취임, 7명의 서리집사 임직이 있었다.

김준식 담임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6년 전 5월 첫째주에 시작한 샬롬교회가 마땅한 예배당이 없어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과 함께 교육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회 일꾼의 자세(디모데전서 4:7-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준식 목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면서 “맡은 직분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임직 받은 일꾼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은사를 활용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면서 “그럴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역 통해 도움을 얻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PCA 서북노회 서기 박수현 목사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임직자를 세워주셨다”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전한 박진수 장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서 “먼저 기도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샬롬교회는 2세를 위한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얼바인중앙교회 “이은수 목사와 찬양예배”

얼바인중앙장로교회(담임 이기업 목사)가 성령강림절과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먼저 찬양 콘서트는 5월 19일(토) 저녁 7시에, 찬양집회는 20일(주일) 정오와 27일(주일) 정오에 각각 열린다. 이번 집회들의 주제는 ‘약속’이다.

이은수 목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등 유명 CCM을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불렀다.

주소) 17702 Cowan, Irvine, CA92614
전화) 714-329-2481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 인 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Oxford Ave / Serrano Ave / Pico Blvd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아동학대

오 종 숙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배우 김혜자의 책 제목처럼 향기 짙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때리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흉기가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생채기를 내는 도구가 된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Child abuse)란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청소년은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아동학대는 대물림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여기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특징 중 하나는 '학대의 대물림'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으면서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고 이 같은 학대를 훈육의 방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부모가 되면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는 죄의식 없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즉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2015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의 비중이 80%에 육박했고 30~40대가 저지르는 비중이 72.8%이고, 학대의 주된 동기는 양육 태도 및 훈육 문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의사 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여러 가지 자격 검증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부모 교육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성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부모가 되어서 육아를 하다 보면 잘 몰라서 당황하고 실수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 부모로서 실패하기도 한다. 이 같은 대물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적응문제(공격성, 폭력행동, 거짓말, 가출 등), 정신건강 문제(불안, 주의 산만,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신체 건강 문제(위생 문제, 언어 문제, 신체 발달 지연 등), 그리고 장애(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정서 학대나 물리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심각하며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적인 후유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정조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2011년 1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 문을 잠그고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아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어머니로부터 수년간 계속 당해 오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학대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고 배워, 결국 똑같이 이를 반복하게 되며,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을 대화나 타협으로 풀기보다는 다툼, 폭력, 분쟁 같은 과격한 양상 즉,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적응은 결국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고 따돌림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학대에 따른 후유증은 상담 등을 통해 치유가 되도록 피해 아동에게 사회 제도적인 도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학대가 단지 한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다수에게 위험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해진다. 특별한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묻지마 살인이나 연쇄 살인 등의 범죄자가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보면 학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분명하다.

한국은 훈육을 위한 아동 체벌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점차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및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것은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언제나 환영하시며 끌어안고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다. 시인 타고르는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한다"고 하였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인류의 미래인 어린이를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과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 자녀를 노엽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부모가 양육과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체벌 이외의 방법을 잘 모른다면 상담이나 부모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좋은 자녀 훈육의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사우스베이목사회 월례기도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했다.

목회자 당신은 행복한가요?

사우스베이 기도회, 월드쉐어 강태광 목사 강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셨고 행복해 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동기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민목회는 행복한가?"

행복전도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미주대표)가 9일 아침 8시 사우스베이목사회 월례 기도회에서 "행복을 주는 사역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이민목회에서 성도수와 교회 사이즈, 부흥이란 걸림돌에 우린 얼마나 행복을 잊어 버리고 사는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다시금 기쁨을 찾자"고 말했다.

강 목사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전도 이야기이다. 주의 영이 충만해 빌립을 이끌 때, 빌립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며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으로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자"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안병권 사우스베이 목사회장의 인도, 이상훈 목사(주비젼교회)의 대표기도로 진행됐다. 이어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와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한편, 사우스베이목사회는 5월을 맞아 은퇴한 원로목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다.

양은순 총장이 크리스천 인성 교육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크리스천 부모 위한 자녀 양육 비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주복음방송(GBC)에서 '크리스천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 세미나'가 개최 중이다. "자녀의 위대함에 불을 지펴라"는 주제 아래 5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정오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첫날인 3일에는 히즈유니버시티 총장 양은순 박사가 크리스천 인성교육을 강의했다. 그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다"며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기도를 강조했다.

5월 10일과 17일에는 베델한인교회 교육 디렉터 이진아 전도사가 가정 안에서의 제자훈련, 성경적 자녀 성교육을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말씀 부흥 집회
"감동을 주는 사람들"
5월 18일(금) 저녁7시 / 5월 19일(토) 새벽 6시
5월 20일(주일) 오전 8시 / 10시 30분 / 오후 1시
갈보리믿음교회
www.calvaryfaithchurch.org
213-365-8880
담임: 강진웅 목사
강사 : 손병렬 목사
포항중앙교회

ICMM이 선교지에 랩탑을 기증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안 쓰는 랩탑, 선교지에 기증하세요

ICMM, 선교지 돕기 위해 랩탑 기증 운동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법인 ICMM(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 제임스 구 교수)이 선교지와 학교 사역에 필요한 랩탑 컴퓨터를 후원 받고 있다. 사용 가능한 상태이지만 성능 저하 등의 이유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단체에서 보관 중인 랩탑을 선교지로 보내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중고 랩탑이지만 선교지와 그곳 학교에서는 유용한 선교 및 교육 도구가 된다.

ICMM을 통해서 랩탑을 기증하면 세금보고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네이션 영수증이 발급된다. ICMM은 최근까지 선교지에 필요한 랩탑 수요 조사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1시 이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개최했다.

현재까지 선교지 12곳에서 랩탑 기증을 희망해 왔다. 총 희망 랩탑은 120여 대에 달한다. 주로 선교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신청 선교사들의 소속은 GMI, 북방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다양하다.

ICMM 측은 오는 6월 3일까지 랩탑을 기증 받아 6월 1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선교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랩탑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 마련된 부스를 방문해 직접 기증할 수 있다. 우편으로 기증하고 싶으면, Grace Library(201 S. Basque Ave. Fullerton, CA92833 Att: ICMM)로 보내면 된다.

랩탑 구매나 발송 비용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수표를 5300 Beach Blvd. Suite 110-214 Buena Park, CA 90621으로 보내면 된다. 받는 이는 ICMM이다.
문의) 714-393-4595

류당열 목사가 오예은 사모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故 오은철 목사에게 공로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가 故 오은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 패는 오 목사를 대신해 오예은 사모가 받았다.

오 목사는 호산나교회를 설립했으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2번 역임했다. 기독언론 크리스천헤럴드를 설립하고 발행인을 맡기도 했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교회의 수난 (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이번 호부터는 일제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는 한국에서 편종교 정책,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줄기차게 탄압과 박멸로 일관하였다. 물론 총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그 정책의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공포되면서 서울에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초대 통감으로 왔다. 그는 주한 선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치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일본이 개혁을 단행할 때 고위 정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종교의 관용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나는 종교와 포교의 자유를 위해 과감히 투쟁하였고, 결국 승리하였다. 나의 이론은 이렇다. 문명이라는 것은 도덕에 근거하고 최고의 도덕은 종교에 근거한다. 따라서 종교는 관용되어야 하고 격려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할 때 이등박문은 기독교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지닌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안중근에 의해 1909년에 격살되고, 1910년 한국이 일제에 병탄된 후 초대 총독으로 내한한 사내정의(寺內正毅)는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한국교회가 겪을 수난을 예고하였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 내 기독교가 정치에 간섭할 마음만 없다면, 신교의 자유는 존중되고 전도활동도 보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 말에 불과했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보여준 행적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사내정의는 1913년 12월 동경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독교회는 조선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곳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지속해야만 한다"며 조선교회 무력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은연중 암시하였다. 그가 한국에 도착하여 시행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독교 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한 그는 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적 축일에 일본 천황의 사진에 절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우상을 섬기고 절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도전함으로 기독교와 대결을 시도했다.

일제는 1909년에 시작된 백만명 구령운동을 교회의 조직적 항일운동을 위한 전초전으로 인식했다. 그는 이 운동이 정치적 운동이라 억지를 쓰면서 교회의 신앙적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사내정의는 교회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란 판단을 했다. 이에 그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억누를 일련의 음모를 획책했다.

기독교가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에 가장 장애가 되는 집단이라 판단한 저들은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교계 지도자들을 사전에 억압할 필요를 느꼈다. 이 지역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신앙심이 깊었으며, 교회가 서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 후세 교육에 열성을 다하였다. 따라서 장로교회 계통의 학교만 해도 1907년에 405개, 1908년에 561개, 1909년에 719개로 매년 150여 개의 학교가 증설되었다.

1908년경 황해도에서 김구(金九), 최광옥(崔光玉), 도인권(都寅權) 등의 기독교계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교육총회'(海西教育總會)라는 단체가 구성됐다. 이 단체의 목적은 한면(面)에 한 학교를 세워 교육에 전념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런 움직임을 항일을 위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박멸할 구실을 찾았다.

그런데 이토(伊藤)를 격살한 안중근의 동생인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세울 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일제는 안명근을 내란 미수죄로 기소하면서, 해서교육총회의 회원 모두를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안명근은 종신징역, 김구 등 7명은 15년, 기타 여러 회원들은 10년에서 5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0여 명은 울릉도와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니 이것이 곧 '해서교육총회사건' 혹은 '안악사건'(安岳事件)이다. 이로써 황해도 지방의 기독교 유력 인사들은 척결되었다. 이제 일제는 그 방향을 평안도 지방으로 돌려 그곳 기독교 지도자 박멸의 음모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105인 사건'이다.

'105인 사건'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이 항일 정신에 충일해 있다고 판단하고, 서북지방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려던 음모다. 초대 총독 사내정의는 전직 육군성 장관이며 철저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한국 통치를 위해 경찰과 헌병으로 철저한 강권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그는 조선통치를 위해 일본 무관 출신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郎)에게 경찰과 헌병의 통수권을 주고 한국을 큰 병영으로 만들어 군대식 통치를 수행하게 하였다.

105인 사건은 총독부 경무총감 겸 조선헌병사령관 명석원이랑이 획책한 사건이다. 당시 조선에서 서북 지방의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대거 몰려 있는 것을 간파한 그는 이 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조리 투옥하여 처음부터 기독교 세력을 짓눌러 버릴 계획을 꾸몄다. 당시 평양 지방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비롯, 여러 교파들이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고, 지도력 또한 강력하여 과히 한국교회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므로 항일적 요소가 짙게 배어 있었으므로 일제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4〉

멕시코 장신 졸업식을 다녀와서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주 토요일에 멕시코 멕시칼리에 있는 바하캘리포니아 장로회신학교 졸업식을 다녀왔다. 올해로 제18회가 되는데 매년 졸업식만이라도 꼭 참석하려고 애를 쓴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보람과 열매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명문 학교란 말이 있다. 미국에도 아이비리그 대학 등의 명문이 있는데, 그 학교 출신의 인물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얼마나 공헌하는가를 보고 명문을 가린다고 한다. 이 신학교도 멕시코의 명문 신학교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십수 년간 졸업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목회와 사회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역에 이바지하며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사, 선교사로 나간 사역자들은 이 학교 학생들의 표상들이기도 하다.

참으로 성실하고 훌륭하게 사역하는 이 학교 출신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배출해낸 선교사님들의 보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본다. 25년 전 불모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신학교 교정을 만들고 막사를 건축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삽 한 삽 이루어 낸 임원석 선교사님 내외와 학생들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신 한필웅 선교사님, 그리고 그 곳을 거쳐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현장을 함께 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크다.

올해도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장로회신학교의 졸업식은 파송식도 겸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자신이 사역할 곳을 향해 출발하는 선교사 파송의 의미도 곁들여 있다. 그래서 더욱 더 귀하고 은혜로운 졸업식이 되었다. 필자는 지난 20년 간 그 학교를 개척한 임원석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부터 적은 힘이나마 동역을 했다. 주변은 먼지투성이 훵한 벌판이었고, 비라도 오면 차가 빠져 오갈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서 임 선교사님 내외는 벽돌과 진흙으로 자신들의 숙소를 지었고 학생들 막사와 교실들을 지어가며 신학교를 시작했던 생각이 난다. 주변의 많은 선배 선교사들의 부정적 시각과 '신학교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며 임 선교사님의 꿈을 짓밟던 주변 사람들도 많았다. 필자는 매년 단기선교팀을 인도하여 그 곳에 갈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귀한 꿈을 들으셔서 멕시코 현지인들의 학교보다 더 우수한 신학 명문을 이루게 하셨다. 이번 졸업식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하여 축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졸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을 원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금 모 항공사 직원들의 가면 집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온 가족 전체가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보들로 드러나는 재벌 일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동영상 등에 나타난 그들은 직원들이나 국민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직원과 국민(고객)을 사랑하고 고객과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경영이 아쉽습니다.

"사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일본인들에게 '경영의 신(神)'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말입니다. 그는 또 "경영은 사람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활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업경영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쓰시타는 '마쓰시타 전기'를 경영하면서 인재중시, 종신고용 등의 개념을 정립한 모범적 기업인입니다.

그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천 년간 가장 위대한 경제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입니다. 마쓰시타는 조실부모하여 9세 때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견습사원 생활을 전전하다 1918년 24세에 자본금 백 엔으로 쌍소켓 제조회사 마쓰시타 전기를 창업합니다. 그 후 독보적인 경영이념과 열정으로 큰 성장을 이뤄 1989년 94세로 운명할 때는 내셔널과 파나소닉이란 브랜드로 세계 20위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입니다.

마쓰시타는 일본 내 연간 개인소득 순위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한 부자지만 손가락질을 당하기보다는 전 일본 국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경영인이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투명하였습니다. 세금, 직원들 급료, 하청업자들과의 거래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인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쓰시타가 존경받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에게는 천부적인 겸손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자신은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이라고 밝힙니다. "첫째,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닦이,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돈을 벌어야 할 목표를 갖게 되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철저히 겸손하고 직원들조차도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했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마쓰시타 회장이 존경받는 이유는 직원의 행복을 진심으로 추구한 기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929년 말 마쓰시타는 위기를 맞습니다. 과잉재고와 자금부족에 시달립니다.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회사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마쓰시타는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부터 생산량을 반으로 줄인다. 직원은 한 명도 줄이지 않고 월급도 전액 지급한다. 대신 모두 휴일을 반납하고 재고품을 팔자." 회장의 마음에 감동된 직원들이 합심하여 재고를 두 달 만에 다 팔아 정리해서 회사를 정상화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동료 그리고 가족들의 기쁨을 구하세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이웃들을 존중하고 이웃들의 기쁨을 도모하면 행복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 무료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정신 건강 사역을 위한 기금을 받았다. LA 카운티 내의 교회나 기관이 5월 한 달 중 정신 건강 관련 세미나를 신청하면 대학교 산하 한인기독교상담소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 비용은 모두 기금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무료인 셈이다.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기술, 분노 조절, 우울, 대인관계 기술, 가정폭력,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미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 수 없었던 교회나 기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문의) 213-738-6930

성가곡집 리딩 세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20일(주일) 오후 5시 지휘자·반주자·교회음악인들을 위한 성가곡집 리딩 세션을 황현정, 안재숙, 조성원, 서병호 씨 등을 강사로 대흥장로교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에서 연다. 선착순 50명. 한편, 이 행사를 방문해 성가곡집을 주문하면 빛나라 출판사에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문의) 310-381-9835

영유아 발달 무료 검사를 실시한 센터 관계자들

영유아 발달 무료 검사 실시해

지난 5일 한미특수교육센터가 베델한인교회를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한 어린이 발달 무료 검사를 실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2개월에서 60개월 된 영유아들이 발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었다.
문의) 562-926-2040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갈렙의 신앙성과

여호수아 14:6-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 년간 짓밟혀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있은 후 광야로 삼일 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지 2년쯤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12지파 중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지파에 속한 후손인데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채찍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해방의 기쁨을 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후 돌아와서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의 말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열 지파 족장들은 매사에 절망을 앞세우는 비관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생각 속에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보살피심을 받아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2년여를 광야생활을 통해 먹고 입을 것과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어있고 그들의 앞날은 절망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에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산 믿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뒷바라지 해주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충정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14:1-4)" 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을 나타내는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이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을 부르며 죽음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7-9)"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에도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민14:13-19)"라고 지혜롭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0-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한꺼번에 구분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구원의 온갖 이적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독하게 믿어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성과로 결실할 수 있는 영생복락의 후사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문은 열심히 드나들지만 결국 신앙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꾸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기사를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택에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생활의 철학으로 알고 잘못 사는,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36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정탐한 내용을 말했고 결국 그는 그의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이 챙겨 차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받아 자녀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몫을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죄 값을 무거운 짐으로 물려주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갈렙의 신앙성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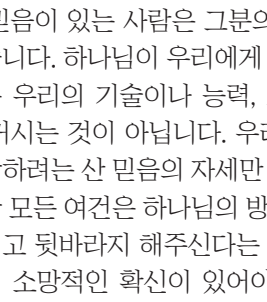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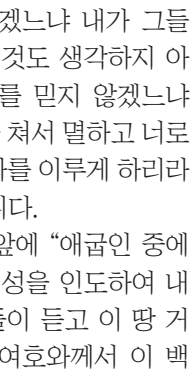
여름학교 모집
6/4 - 7/27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융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융자 문제 없습니다.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융자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 매매 융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벤스 | SBA 융자 |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융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지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융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융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조지아센추럴대학교 황진기 신학대학원장

내실 다지기는 끝났다
GCU 신대원의 발전 기대해 달라

[인터뷰] 조지아센추럴대학교 황진기 신학대학원장

조지아센추럴대학교(GCU, 총장 김창환 목사) 신학대학원이 대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측은 지난 해, 풀러신학교 한인목회학박사원 2대 원장을 역임한 황진기 교수를 신학대학원장으로 영입해 교육의 질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1일 만난 황진기 신학대학원장은 "그동안 풀러에서 교수와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GCU가 이미 가진 인프라와 기회를 선용한다면, 앞으로 애틀랜타 한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틀과 역량을 보다 잘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기 신학대학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에서 목회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와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풀러신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GCU 신학대학원장으로 오시면서 우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애틀랜타는 전반적으로 교회 수와 목회자 수, 성도 수 그리고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한인 신학대학들과 미국 신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신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다.

GCU 신학대학원은 감사하게도 지난해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정회원으로 승격되면서 신학교육의 수준을 더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신학대학원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GCU 신학대학원은 현재 ATS 인가 신학교에 걸맞게 양질의 신학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커리큘럼과 교수진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진행중이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변화가 외부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 부임 이후 원거리교육프로그램(온라인 과정)이 ATS에서 승인됐고, 철학박사(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승인절차 중에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공개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ATS 인가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인가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단순히 인가를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ATS 인가 신학교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다. GCU의 경우 이미 가진 역량을 재정비하고 신학대학원의 장점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뉴저지 분교와 남가주 분교에 대해 정식 승인을 받고 온라인 교육과정(Comprehensive Distance Education)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나 철학박사 과정의 ATS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등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실력과 현장사역 경험을 겸비한 교수님 세 분을 초빙하는 등 교수진 강화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부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은 내부적으로 신학대학원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신학대학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애틀랜타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려고 한다. 내년부터 졸업 이후에도 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 지도자가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교회) 내 GCU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학교가 지금까지 애틀랜타 지역에 계신 동문들로 인해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 동문들과 지역교회들에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신학대학원장에 부임해보니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학교에 대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학교의 지난 일들로 인해 실망하셨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기대하신 것보다는 좀 더딜 수 있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 신학대학원장으로서 학교가 지역교회와 상호 연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호혜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애틀랜타 지역에 계신 목회자들과 교제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성경 해석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애틀랜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신지?

솔직히 캘리포니아에서 온 제게는 애틀랜타는 여러모로 참 낯설다. 하지만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킹 센터와 생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참 특별한 도시라 생각한다. 여기 와서 킹 센터와 생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받은 벅찬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전에는 정의와 평화, 인권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마음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GCU에서의 학문적 연구와 신학 교육을 통해 이 도시의 이 특별한 장점을 잘 살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앤더슨 김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전계헌 총회장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통일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장 합동

예장 합동, 베를린에서 통일선언문

동족사랑 · 북한교회 재건 · 통일세대 양성 비전 제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지난 1일 정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2018 총회 베를린 통일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단 차원의 통일선언과 비전을 담고 있다.

독일에는 총회장 전계헌 목사를 비롯해 임원 8인과 통일준비위원회 김용대 목사(위원장) 등 7인, 총무 최우식 목사 등이 함께 갔다.

통일선언문을 낭독한 전계헌 총회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분단의 상흔을 딛고 평화의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족의 아가페 사랑운동 실천 △동족사랑 실천 △통일세대 양육 △북한교회 재건운동 앞장 등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대북 접촉 창구 설립 △통일신학 정립 △통일기금 조성 등 향후 교단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일준비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총회 베를린 통일선언은 우리 총회가 통일운동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교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연 이동석 대표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연

한기연, 미혼모 단체에 아기용품 전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상도동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자립정착금 100만원과 아기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예장 호헌 총회장 김효종 목사, 한기연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를 비롯한 여성위원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기용품 전달식은 여성위 서기 공선영 전도사의 사회로 김효종 목사가 기도하고 이동석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고후5:17) 제하의 설교, 김옥자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이동석 목사와 김옥자 목사가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에게 정착금 100만원과 기저귀와 용품 등 2백만원 어치를 전달했다. 이어 박미자 원장이 인사하고 이동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와 전달식을 마쳤다.

이동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누구나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여 살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면서 "지고 변명을 말하지 말고 이겨내 간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김옥자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자는 취지로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자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기연이 벌써 4년째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모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장차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권사는 또 "미혼 엄마들이 제2의 삶이 시작되는 꿈나무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아기의 키가 자라듯 엄마들의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며 큰 꿈을 품고 희망을 찾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꿈나무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남상훈 장로, 장로총연 회장 취임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신임회장에 남상훈 장로(예장 합동)가 취임했다. 남 장로는 30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는 단순히 장로들의 연합조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교회와 교단을 아울러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복음 전파와 한국교회 수호에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37회기 동안 수많은 장로 회원들이 눈물과 땀으로 연합회를 이끌어 왔다. 지금도 많은 장로들이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동안 쌓아온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불신자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셨다.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1984년 삼례동부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34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전북지역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으로 섬기기도 했다. 현재는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 사장이다.

김진영 기자

존 파이퍼 목사 ⓒ패션 콘퍼런스

팀 켈러, 존 파이퍼…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

베일러대학교 트루에트신학대학 선정

최근 미국의 베일러대학교 트루에트신학대학은 현대 설교의 기준을 제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유력한 복음주의 설교자들로 개혁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와 팀 켈러 목사, 전통적인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 해돈 로빈슨 목사로부터 떠오르는 앤디 스탠리 목사, 랄프 더글라스 웨스트 목사 등 교단에 상관없이 선정됐다.

순위 선정에는 복음주의설교학협회(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와 설교학아카데미(Academy of Homiletics)의 180명의 설교 전문가가 참여했다. 12명 모두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베일러대학교가 소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알파벳 순)이다.

△알리스터 벡(Alistair Begg)

클리블랜드 외곽에 위치한 파크사이드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의 저자이며 '스펄전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을 맡았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설교자로 그의 설교는 '삶을 위한 진리'(Truth for life) 라디오 방송으로 퍼져나갔고, 복음주의 단체 '얼라이언스 오브 컨페싱 에반젤리컬'(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을 섬기고 있다.

△토니 에반스(Tony Evans)

달라스의 오크 클리프 바이블 펠로우십(Oak Cliff Bible Fellowship) 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 목사이다. 달라스신학대학에서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흑인이다. 에반스 목사는 인종주의의 해결책으로서 십자가에 관하여 글을 쓰고 설교해 왔다. 지난 2009년 그는 설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인용구, 예화 등을 추려 책을 내기도 했다.

△조엘 그레고리(Joel C. Gregory)

텍사스 와코 지역의 베일러대학교 트루에트신학대학 학장으로 설교와 전도학에 관해 매우 탁월한 인물이다. 그레고리 목사는 최근 세계 전도 50주년 기념식을 가졌고, 지난해에만 32개 교회와 20번의 콘퍼런스에서 170번 설교를 했다.

△팀 켈러(Tim Keller)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목사이다. 지난해 리디머 교회의 강단에서 물러났다. 2015년 자신이 쓴 '설교'(Preaching)라는 책에서 그는 "강해설교는 기독교 공동체에 주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

아틀란타 소재 에모리대학의 챈들러 신학교의 명예교수이다. 롱 목사는 자신의 설교 과정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목회자들에게 원포인트 설교를 붙들라고 강조하지만 자신의 설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난 진지한 설교자, 스스로에게 이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은 매주 완벽한 설교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티스 모스 3세(Otis Moss III)

시카고 소재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그리스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프로그레시브 내셔널 침례교와 유나이티드 그리스도 교회에서 4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는 최연소였다. 모스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회심해서 성도가 된 교회로 유명하다.

△존 파이퍼(John Piper)

미네아폴리스 소재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오래 사역한 목회자이며 웹사이트 DesiringGod.org 설립자이다. 파이퍼 목사는 개혁신학의 대중화로 유명하다. 젊은 세대들 중에는 파이퍼 목사가 지난 2000년 패션 콘퍼런스에서 전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Don't Waste Your Life) 설교를 듣고 그를 추종하게 된 이들이 많다. 2010년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설교자 10명에 들기도 했다. 그는 현재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신학교 학장으로 있다.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

보스턴 소재 고든콘웰신학교 전 총장이자 설교학 교수이다. 로빈슨 목사의 책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는 신학교와 성경대학에서 기본 교재처럼 읽힌다. 작년 86세로 소천한 그는 강해설교의 1인자로 기억되고 있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애틀랜타의 노스포인트 교회와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 설립자이다. 그는 자주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떻게 잘 공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설교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과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교체하기도 한다. 그는 터치미니스트리 설립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자 10명 안에 들었던 바 있다.

△찰스 스윈돌(Charles Swindoll)

텍사스 프리스코 소재 스톤브라이어 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이다. 라디오 사역과 함께 지난 1963년부터 목회를 해온 스윈돌 목사는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002년 '리더십 저널' 독자들은 그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꼽았다. 2010년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는 빌리 그래함 목사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Barbara Brown Taylor)

전 성공회 사제이자 교수, 작가, 신학자이다. 그녀는 콜롬비아신학교와 에모리 챈들러신학교, 머서대학교 맥아피신학교 등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최근 '언 알타 인 더 월드'(An Altar in the World)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녀 역시 라이프웨이가 꼽은 영향력 있는 설교자 10명 안에 들었다.

△랄프 더글라스 웨스트 (Ralph Douglas West)

휴스톤 소재 '벽이 없는 교회'(The Church Without Walls) 설립자이자 담임 목회자이다. 그는 여러 캠퍼스를 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트루에트신학대학에서 조교수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웨스트는 설교자로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스타일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1부)오전9:30 / EM예배 (2부)오전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0:00 / 3부(영어) 정오12:00 / 주일학교 오전10:00 /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한국학교(토) 오전 9:00 /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 한글학교 오후 6:00 (금) /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 영어예배(EM) 주일 9:00am /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30 /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 일본어 예배 오후 1:30 /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 2부 오전 9:15 /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 중등부 오전9:15 / 고등부 오전11:30 / 한어부 오전11:30 /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예배 오후 2:00 /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 주일 예배 오전 11:30 / 목요 예배 오후7:30 /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 수요 예배 오후 7:30 / E.M(Youth)오전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찬양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 2부예배 오전 09:30 / 3부예배 오후 11:30 /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 토요일 오전 06:00 /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 찬양예배 오후 7시(수) /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 2부 예배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한길교회 The Way Church

남가주 LA 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PCA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 신앙고백서 / 목회 비젼
1년 이내 두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서류 마감일 5/31/2018

■ **제출**
thewaychurch.calling@gmail.com

모든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길교회 청빙 위원회
4050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추신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학위 취득자
3. 목회경력 :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미국 목회 3년이상 경험자)
4.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5.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6. 목회자 2명의 추천서

제출 마감일
2018년 6월 15일(금)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1.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oc1 church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하며, 지난 44년동안 "주님사랑, 영혼사랑, 인재양성,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 5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자격조건
1. 정규 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남침례교단의 교리와 신학배경을 6개월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3.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장년사역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선호 (한국어/영어)
5.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3개월내 촬영한 사진 첨부)
2.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설교 CD/DVD/USB.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4. 목회 비전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및 계획
5.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6. 추천서 2매 (각 추천인의 밀봉날인)

접수마감: 2018년 6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접수는 이메일로(pdf.file)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 사절)**

제출처
-얼바인 침례교회 청빙위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Email: Pastoralcall.ibc@gmail.com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성도는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홀연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한국이 통일이 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방문한 학교 사무실 직원이 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의 석방이 거론되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6명의 한국인의 석방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홀연히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 많은 사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로 촉발된 문제가 이제 평화를 향한 출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즉각적인 전쟁의 긴박함을 간신히 피한 지금, 더 좋은 미래를 향한 국제정치의 결단이 나오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바른 결단을 통하여, 조국의 앞날에 화해와 통일과 민족 번영의 전기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 지혜이며, 없어질 지혜, 곧 한계속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종종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8)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다. 검증하고 비교하여 좋은 정치가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지혜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들을 사로잡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엡6:12). 악한 영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그의 몸 된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종종 시행합니다.

이 시대에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2:12)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마음"(고전2:16)을 가졌다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밧줄 붙들기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어록을 소개합니다. "I will go down, but remember you must hold the rope(저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밧줄을 붙들어 주셔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에서 저는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멜 깁슨이 감독을 한 'Hacksaw Ridge(핵소고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지원병으로 나서는 데스몬드 도스(Desmond Doss)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가치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총 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훈련을 다 받지만 결국 자신과 함께 싸우는 전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군인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은 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지만, 위생병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총들기를 거부하는 데스몬드 도스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를 엄호해 주고 지켜 주어야 하는 의무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전쟁에 임할 수 없다고 왕따를 시키고, 때론 몰매를 때리며 집에 가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우들의 불신 속에서도 도스는 꿋꿋하게 위생병으로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드디어 그 치열했던 핵소고지 전투에서 그의 활약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서 이미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그는 부상당한 전우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할 뿐만 아니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구출해 내기 시작합니다. 적의 총알을 피해 다니며, 부상당한 전우들을 절벽 끝으로 업어 나르며 밧줄에 매어 절벽 아래로 내립니다. 자기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후퇴하는 대신 "한 사람만 더 살리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폭탄의 화염 속으로 다시어 들어갑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를 거듭하여 47명의 부상당한 전우들을 살려냅니다. 밧줄에 부상당한 전우들을 매어 절벽 아래로 내리며, 도스는 손에 피가 나도록 그 밧줄을 붙들었습니다. 그 밧줄에 전우의 생명이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스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 의회가 주는 최고의 명예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총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총으로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있음을 심장 떨리게 가르쳐 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밧줄을 서로를 위해 붙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35명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밧줄을 서로 붙들어 주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붙들고 있는 친구는 누군지 절벽 아래로 한참 살피고 있는데… 내 뒤에서 주님께서 손에 피가 나도록 내 밧줄을 붙들고 계셨네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복음을 접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나타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또 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핍박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압박을 느끼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로 손해나는 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그 어떤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시간을 내어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성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방문 중 야손의 집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난 사람들은 대신 야손의 식구들을 끌고 그들의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가 기소를 합니다. 그 기소 내용이 무엇인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Trouble all over the world'라고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압골이 형성되면 바람이 불든지, 구름이 모여들든지 어떤 현상이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잠잠하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됨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현미경 없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에게 감염되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며, 오한이 발생합니다. 악한 영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악한 영에 영향을 받으면 눈빛이 바뀝니다. 말투와 표현까지도 바뀝니다. 하물며 가장 위대하신 주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기에 생겨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찮은 나비의 날개짓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위대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따라 존 스토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신간 도서

깊은 영성
마이클 헤이킨 | 이홍길 역 | CLC | 244쪽

개혁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 묵상, 선교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다룬다. 저자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에 기독교 영성의 함의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서던침례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잠언으로 여는 아침
이찬구 | 예영 | 530쪽

잠언은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저자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 들려준 솔로몬의 잠언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하루에 잠언 한 장씩, 해당 장의 묵상 내용 한 편씩 읽으면 1년에 12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잠언의 구조와 해석의 원리 등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잠언을 배우는 즐거움 또한 선사한다.

그때와 오늘 거기와 여기
류황희 | 세움과비움 | 310쪽

세리 출신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의 주제로 정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계시는 중요하다. 저자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2천년 전 마태가 전하려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자세히 전해준다.

추천 도서

막막할 때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김기석 목사의 부활절 설교 모음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김기석
두란노 | 256쪽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생명이 소멸하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입구였습니다. 부활이란 작은 개체로서의 생명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김입니다."

유려하고 웅숭깊은 문장으로 사랑받는 저자가 '부활'을 주제로 쓴 글이다.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한 내용이 담겼다. 설교를 엮었지만, 에세이나 묵상집처럼 읽힌다. 각 장마다 '거둠의 기도'가 마지막에 들어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부활절은, 사순절이라는 어둡고 긴 금욕과 절제의 시기를 견뎌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빛의 절기"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러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알리바이로 호출되곤 한다. 사람들은 흔히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진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 "부활 신앙은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부활 신앙은 미래에 지속될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삶과 더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세상의 악에 의해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근원적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시간의 공포를 견딜 수 있다. 부활은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망 혹은 두려움이 하늘에 투사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답게 살려는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하늘의 승인인 동시에 격려"라고 덧붙인다.

저자는 '해가 막 돋은 때(막 16:1-8)'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음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라고 전한다. 주님도 며칠 후면 부활할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 "만일 그랬다면 십자가의 비장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과정은 연기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식은 예기치 않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주님의 그 '모르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각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결속을 굳게 해줍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난감한 현실을 만날 때, 도무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돌덩이가 이미 굴려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치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향하신 곳으로 가서 일해야 할 차례이다.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과 노인들, 가출 청소년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있는 모든 곳에 갈 수 없고, 슬픔이 있는 모든 일에 뛰어들 수 없지만, 요구가 있을 때 응답할 수는 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 걸음 더 그들 곁에 다가가고, 몸을 낮추어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좀 더 시간을 내어 그들의 벗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미소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낮고 위험한 곳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저자는 〈인생은 살만한가〉와 〈끙끙 앓는 하나님〉, 〈아! 욥〉, 〈광야에서 길을 묻다〉,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아슬아슬한 희망(이상 꽃자리)〉, 〈마태와 함께 예수를 따라〉, 〈일상순례자(이상 두란노)〉, 〈흔들리며 걷는 길〉, 〈오래된 새 길〉, 〈삶이 메시지다(이상 포이에마)〉 등의 저서를 썼다.

이대웅 기자

'공동체·조직체'로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속성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양혁승 · 류지성 · 배종석
IVP | 356쪽

10년 전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를 통해 한국교회가 특별히 중시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 핵심 원리들을 도출했던 기독경영연구원 소속 경영학자 3인이 다시 모여 집필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경영학적 기법을 토대로 180개 교회를 설문 조사하고 8개 교회를 심층 취재하여 한국교회 정서에 맞는 입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강성'을 참된 예배, 연합된 지체, 건강한 자람, 섬김의 실천 등, '조직체로서의 교회 건강성'을 목적 충실성, 세움의 리더십, 직분의 회복, 핵심 원리에 기반한 운영 등 각각 4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 교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본질이 가장 잘 구현되도록 뒷받침해 주는 조직체가 필수적이다.

이 책은 "목회자가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가려면, 본인의 결단에 이어 성도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 성도들은 비로소 목회자가 이끄는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며 "신뢰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목회자의 동기의 순수성과 헌신적 자세, 일관된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MATRIX SHAFTS FOURTEEN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월요일~금요일 9:30~7:00 토요일 사전예약 Only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이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다윗의 도시 전경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고고학적 발굴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3)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다윗만큼 구약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스라엘의 전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사울의 사후 모든 지파들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하고 30세에 왕이 된 다윗은 40년 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을 물리치고 이곳을 다윗산성으로 만든 후,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된다.

고고학에서는 다윗 시대의 사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다윗 시대가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하다. 몇 년 전에 텔 단 지역을 발굴하다 다윗의 이름이 적힌 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조차도 부인하려는 고고학자들이 있기도 하다. 다윗에 대한 것은 성경 외에는 자료가 없어 사실 규명이 어렵다 하지만 성경보다 더한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성경대로 가 보자.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사울의 시대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삼하5:1-12) 그의 거처가 된 왕궁터는 사실 지금의 우리 눈에는 참으로 작게 보인다.

밧세바를 만난 곳이 어디인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왕궁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도 매우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발굴된 것 가지고는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왕궁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궁 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묻지 말자. 밧세바를 어디서 만났든, 솔로몬을 어디서 낳았든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다윗의 도시라고 하여 유대인들이 오펠이라는 지역에 고고학 발굴을 조금 해놓았지만 찾는 이들이 적은 것은 유적의 빈약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나면 꼭 다윗의 도시를 방문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도시는 지금의 옛 성 동남부근에 키드론 골짜기를 끼고 축대처럼 되어진 유적지이다. 다윗의 도시를 따라 내려가면 기혼 샘과 실로암 못에 이르고 아켈다마(Akeldama)와 엔로겔도 보인다.

아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가룟 유다가 은 삼십을 성전 안에다 던지고 목을 매달아 죽는다. 대제사장은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였기에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한다. 피밭(Hakel Dema)은 아람어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1:15-19에도 언급된다. 힌놈의 골짜기(Gehenna, Valley of Hinnom)와 키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부근, 힌놈의 골짜기 서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실로암 연못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수도원에는 다양한 바위무덤이 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키드론 골짜기를 따라 사해까지 내려갈 수 있다.

〈계속〉

오펠 지역 예루살렘 성 남쪽 지역

다윗의 도시로 가는 안내판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편입생 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6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가나안 성도를 회복하게 하는 목사와 설교란”

신동식 목사, 개혁신학포럼 제15차 정기세미나에서 발제

개혁신학포럼 제15차 정기세미나가 ‘성령과 설교’라는 주제로 4월 30일 고양 풍동 현산교회(담임 최덕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후 시간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가 ‘도피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발표했다. 신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밖 성도들’을 일컫는 ‘가나안 성도’ 대신 ‘도피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동식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나안 성도를 비롯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교회 쇼핑족, 교회 난민, 영적 엘리트, 영성 소비자, 잃어버린 양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교회를 통해 삶의 회복을 꿈꿨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게해 더 이상 교회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도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피난처로 삼은 도피성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며 “이들을 ‘도피성도’라 부르는 것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오히려 동시에 교회를 찾고 있다. 당장 찾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찾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늘 시민으로 돌아오게 하는 간절한 기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목사는 “수치상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위기는 ‘지금껏 누렸던 영화와 권력의 위기’이다. 그래서 기득권 집단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실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위기설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영적 측면에서는 더더욱 동의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회가 파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누렸던 기득권이 상실되고 견고한 성읍과 같았던 교회가 황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고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엉뚱하고 괴인한(꾀를 쓰거나 유혹하여 남을 어느 곳으로 나오게 하다) 신학과 신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동식 목사는 “도피성도의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도피성도의 시작은 떠돌이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 고향이 있는데 갈 수 없고, 집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 실망과 낙담, 원망과 분노만 남았다”고 했다.

신 목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강요받는 신앙의 부담, 일방적 기도와 설교와 나눔 등 소통의 단절, 성도들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오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도피성도를 유발한 교회의 질병은 예수님만 좋다는 ‘언행불일치’, 정체성 부실에서 오는 ‘직무 유기’, 표지를 잃어버린 ‘의무 상실’, 세상과 타협한 ‘소명 변질’, 권력과 탐욕의 도구가 된 ‘탐심 비대’, 정직한 공동체를 향한 ‘실망’, 건물이 크면 사람이 채워진다는 ‘건물 환상’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도피성도를 만든 목사와 목회의 모습은 빈약한 소명의식, 설교자의 희미한 정체성,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설교, 책이 사라진 목회, 설교와 삶의 균열, 외형적 경건에만 힘씀, 오장육부와 쓸개가 살아있음, 성화를 위한 게으름,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지 못함, 맘몬의 종이 된 은퇴 등이 있다”며 “결국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공동체를 상실하며, 목회자를 향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비이성적 신앙에 자신을 맡기며, 열광과 식어짐을 반복하고, 지상명령은 위축되며, 교회의 영향력이 빈약해지게 한다”고 했다.

신동식 목사는 “그러므로 도피성도들을 회복시키는 핵심도 목사와 설교에 있다. 설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도피성도는 나올 수 없다. 도피성도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도피성도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을 1차적으로 설교자와 설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피성도 회복을 위한 설교 내용은 첫째로 ‘교리 설교’이다. 그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이 교회의 지배자가 되면서 설교가 빈약해지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한다면서 교리를 포기했고, 특히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 공공의 죄는 설교하지만 동시에 개인적·내면적·공동체적 죄에 대한 설교는 왜소하다”며 “교리 설교는 중구난방인 성경 이해에 질서를 잡아주고,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며, 믿음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둘째는 ‘연속 강해 설교’이다. 신 목사는 “연속 강해 설교는 시작이 힘들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연속 강해 설교는 도피성도들이 분노하는 ‘표적 설교’라는 필요 없는 오해를 주지도 않는다”며 “연속 강해 설교는 목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설교자가 지쳐버릴 수 있기에 처음부터 너무 긴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복음서 중 짧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셋째는 ‘균형 잡힌 설교’이다. 그는 “설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도피성도들은 정직한 답을 얻고 싶어하므로, 이러한 균형이 설교에 있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설교는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원색적인 복음전도 설교,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설교”라고 설명했다.

또 “설교만큼 설교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도피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실망이 있기에, 아무리 좋은 설교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에 대해 은혜 받을 자세가 있어야 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됨을 보여주고, 독서를 통해 신뢰를 받으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자발적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동식 목사는 “교회를 떠난 도피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 TV에서 설교를 듣거나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들을 만나 개인 제사장과 같은 목사를 사고 있다”며 “설교자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맘몬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교회에서 도피해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OMF 불교권 세미나에서 알렉스 스미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세계 인구 약 7분의 2 대중불교인 향한 선교

알렉스 스미스 박사는 50여 년간 OMF 태국 선교사로 활동했다.

최근 신반포교회에서 열린 OMF 불교권 세미나에서 불교권 선교 전문가 알렉스 스미스 박사(Alex Smith)는 “불교국가에선 대부분 기독교인 비율이 1% 미만”이라며 “한국과 같이 불교권에서 복음화된 나라는 복음을 들고 다른 불교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50여 년간 OMF 태국 선교사로 활동한 스미스 박사는 “불교가 전래될 때는 마치 대형 진공청소기와 같은 형태로 들어와, 그 지역의 모든 종교와 문화적 요소를 다 흡수하여 민속불교, 토속불교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372년이다. 가톨릭이 소개된 16세기 후반, 개신교가 소개된 19세기 초보다 각각 1200년, 1600년 빠르다. 현재는 30여 개의 종파, 1만여 곳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미스 박사는 “한국불교도 대부분 불교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토속문화와 어우러져 존재한다. 미신적 요소와 나중에 들어온 유교, 문화 요소 등이 혼합된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몽골, 티베트, 베트남 지역은 불교에 샤머니즘과 조상숭배를 같이 묶는다”며 “중국도 인구 중 적어도 절반을 불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30%는 불교인이지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수용하는 불교인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존재하는 불교 역시 우상숭배, 조상숭배, 도교, 유교, 힌두교, 미신, 주술적 요소들이 다 섞인 불교이며, 일본불교도 신도, 조상숭배가 섞여 있다. 이전에 존재한 왕, 장수들을 숭배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며 “이런 토속불교인은 지구상 인구의 약 7분의 2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가 토속불교인, 대중불교인을 순수불교인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박사는 “불교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는 대중불교를 토속불교의 범주로 구분하고 접근방법을 찾는다”며 “기독교가 불교권을 향해 나아갈 때 관심을 두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스미스 박사는 불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유일신 창설신화여서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불교국가에서는 창조주와 연결될만한 설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2333년 단군이 한국을 시작했다는 단군 신화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불교의 조상숭배, 제사 부분도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박사는 불교권이었지만 복음이 세력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약 25~27%로 성장한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불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당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불교권 중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이룬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한국교회와 한국선교 역사에서 이루셨다”며 “한국 초기 기독교는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이 확산됐다. 오늘도 평신도들이 불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2018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다시 얻은 생명으로 열정적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4) – 김병호 장로

열정을 의미하는 'passion'은 라틴어 'passio(고통)'에서 왔다. 열정은 그냥 단순히 힘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뜨거움이다. 열정은 난관을 극복케 한다. 철인 랄프왈도 에머슨은 "열정 없이는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화사한 날에 맞춤양복 전문점 골드핑거의 사장 김병호 장로를 만났다. 인터뷰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기자는 김병호 장로에게서 청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다. 그 열정으로 김 장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이민생활의 고비를 넘기고 어엿한 기독(基督) 실업인(實業人)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산업화 현장에서 기능인으로

산업화 물결이 한창이던 1970년대 청년 김병호는 친척의 권유로 양복업계에 투신하였다. 1950년대에 시작한 국내 원단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양복 기술의 발달로 소위 양복점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신사복 정장 제작 기술을 배우려 했다. 배우는 사람들은 많고 일할 곳이 적은 상황에서 젊은이가 꿈을 키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열정의 사람 김병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착실히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 건실한 기능인으로 양복업계를 지켰다. 김 장로는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능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한국 맞춤양복협회 장인상도 수상하였다. 타고난 근면함과 손재주를 세상이 알아준 것이다.

열정으로 열어가는 성공시대

맞춤양복의 전성시대는 80년대 초 기성복의 등장으로 쇠퇴한다. 구로공단과 청계천을 일대로 발달한 봉제산업 활성화와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맞춤양복 산업은 쇠락한다. 많은 양복점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김병호 장로가 운영했던 신당동 대림라사는 뒷골목에 위치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한 달에 100벌 이상을 주문 생산하는 기염을 토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러나 열정을 다하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 불황에서 허덕이는 김병호 장로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 당시 KBS 기동취재반이 대림라사에서 취재를 했고, 거울에 비친 대림라사 간판이 방송을 탔다. 거울에 비친 양복점 이름만 방송되었는데 대림라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양복점이 되어 전국으로부터 고객이 몰려온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왔다. 양복점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J모직이 기성복 시장에 뛰어들면서 맞춤양복 업계는 다시 휘청거린다. 대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여파는 엄청났다. 맞춤양복점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이때 김병호 장로의 열정이 다시 한번 발동한다.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대기업 원단 불매운동을 주도한다. 약수동에서 뚝섬까지 걸어서 150개의 양복점을 방문하고 불매운동 동참 서명을 받았다. 김 장로의 열정에 감동한 양복점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난리가 났다. J모직 물류창고에 원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마침내 J모직이 항복했다. 보전금을 주며 타협을 시도했다. 이때 J모직이 준 보전금으로 '한국 맞춤양복협회 회관'이 건립됐다. 김병호 장로의 열정을 설명하는 일화다.

바닥에서 시작한 이민 생활에서 꽃은 피어나고

이후에 불어닥친 IMF의 바람은 김병호 장로를 덮쳤다. 한국에서는 재기조차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모가 주신 1천만 원으로 항공권을 사고 나머지는 정착금으로 사용했다. 그 1천만 원은 아들의 재기를 위해 노모가 이웃에 빌린 돈이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이민이었다. 2000년 7월 29일. 잊을 수 없는 그 날부터 시작된 미국 생활은 땀과 눈물에 젖은 촉촉한 날들이었다.

준비없이 시작한 이민생활은 쉽지 않았다. 기능인으로 취직해서 옷을 만들었다. 직장생활도 후회없이 성실하게 했다. 나름 의리를 지키려 했다. 자신을 직원으로 받아주고 영주권을 내준 옛 사장님께는 아직도 1년에 2번씩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것이 김병호 장로의 사람됨됨이다.

2011년에 개업한 골드핑거는 LA 다운타운에 있다. 제법 자리를 잡았다. 기성복이 판치는 상황에서 맞춤양복점을 찾아 주는 고객들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김병호 장로는 고객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 만족을 도모한다. 골드핑거는 미국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한인 고객도 있지만 주 고객은 미국인들이다. 김 장로의 기술과 인격을 믿고 찾아 주는 고객들이 있어 골드핑거는 든든하다.

맞춤양복 전문점 골드핑거 사장 김병호 장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신앙훈련

우연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곡하게 신앙생활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김 장로는 대림라사 근처에 있던 문화교회를 출석했다.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힘이 되었다. 그 중에도 문화교회 박병섭 장로의 심방과 기도는 잊을 수 없다. 박병섭 장로는 오가는 길에 꼭 양복점에 들러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다. 박 장로의 사랑의 심방과 격려는 새신자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김병호 장로는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진다.

어느덧 김병호 장로에게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매주 듣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언제부터인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김 장로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도미하여 새 삶을 사는 동안에도 김병호 장로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주일 성수하다가 체험한 주님 손길

어느날 김병호 장로의 몸이 여상치 않았다. 병원을 찾았는데 병명을 밝히지 못했다. 몸에는 이상 증세가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니 맘이 답답했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방문한 한국에서 첫 주일을 맞는다. 머물던 큰 딸 집에서 큰 딸과 함께 교회를 찾는다.

찾아간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였다. 그런데 전문의들의 자원봉사로 심장·폐 질환자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광고를 듣는다. 김병호 장로는 곧장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단번에 검진을 권고 받는다. 다음날 검진을 통해서 심근 경색이 75% 이상 진행되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고 수술하여 완쾌된다. 김 장로는 이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랍다. 우연히 찾은 교회, 우연히 찾은 예배, 그리고 우연히 받은 상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다. 김 장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다.

기도제목과 소원

인터뷰를 마치며 기도제목과 소원을 묻는 기자에게 김병호 장로는 기다린 듯이 대답했다. 우선, 철저한 주일 성수라고 대답했다. 그는 골프를 티칭프로에게 어렵게 배웠지만 필드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골프를 하면 주일에도 골프장에 나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주일을 지키는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것이다. 둘째,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인생이라고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생명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셋째로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그는 늘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가 한샘교회(이순환 목사)를 섬기게 된 것도 이런 마음에서다. 목회자와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자 보람이다. 김 장로는 섬기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 원치 않는 감투도 쓴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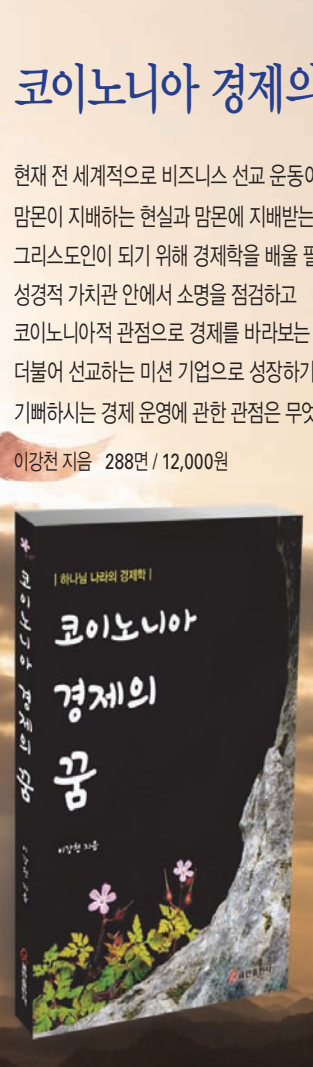
김 장로는 인터뷰 내내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할 말이 많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스토리를 주신다. 김 장로에게는 인생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스토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김 장로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강태광 편집위원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Ⅰ, Ⅱ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밝히는 데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내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쿰란출판사

Kobe Pearl LAS VEGAS CURTAIN CALL SALE

고베펄에 주신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베펄 폐업정리!

묻지마세일!!

고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진주전문 고베펄사를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베펄사는 최근 몇년동안 불경기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폐업정리를 단행하게 됐습니다.다만 오는 9월 부터는 HELEN AIKO JEWELRY 라는 이름으로 진주목걸이에도 혁신적인 아트 요소가 가미된 프리미엄 제품 만을 엄선해 시판하게 되는 GIA 명품라인을 구성해 전국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고베펄 비드 목걸이 서비스 등은 차질없이 HELEN AIKO JEWELRY에서 맡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시판하고 있던 1만여점의 진주보석 등은 29불부터 시작하는 묻지마 가격으로 폐업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주목걸이 등 1만여점 묻지마 폐업정리!

믿을수없는 파격세일

고베펄 바로크 콜렉션 CLEARANCE 파격세일!

가든그로브 일정
2018년 5월 4일(금) - 8일(화), 단 5일간
장소:인디안 아울렛(아리랑 마켓 몰 내)
9618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엘에이 행사 일정
2018년 5월 9일(수) - 11일(금), 단 3일간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부에나팍 행사 일정
2018년 5월 12일(토) - 13일(일), 단 2일간
홀리데이 인 특설매장 Garden 1 룸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